

고등학생 방한단(제 1~2 단) 파견사업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일본 전국에서 선발된 발신력 있는 고등학생 등 70 명을 한국에 파견하여 각종 시찰, 학교방문 등을 통한 동세대와의 교류, 강의청강 등을 통해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일본의 매력을 폭넓고 적극적으로 발신함으로써 앞으로 한일 간의 상호이해촉진 및 신뢰관계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 프로그램(온라인 사전학습) 일본의 고등학생 등 70 명
파견 프로그램 일본의 고등학생 등 70 명

【방문지】 파견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70 명

【일정】

사전 프로그램(온라인 사전학습):

10 월 21 일(토)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설명)

■ 파견프로그램:

11 월 5 일(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오리엔테이션

11 월 6 일(월) 【강의】 ①한국과 일본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 ②한일관계 2000 년 화해의 길에서, ③전후의 한일경제관계, 【예방】 ①한국국립국제교육원, ②경기도 구리시청, 【강의】 ④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11 월 7 일(화) 【학교방문·교류】 성남외국어고등학교(제 1 단), 청명고등학교(제 2 단), 【시찰】 ① 명동 지역, ②월드 K-POP 센터

11 월 8 일(수) 【시찰】 ①비무장지대(DMZ) 캠프 그리브스, ②한국국립민속박물관, ③인사동 지역

11 월 9 일(목) 충청북도로 이동, 【기업 방문】 풀무원, 【학교 방문】 고려대학교, 【교류】 방한단 OB와의 대화

11 월 10 일(금) 【기업 방문】 LG 사이언스파크, 【시찰】 ①여의도 지역, ②국회의사당, 성과보 고회

11 월 11 일(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3년 11월 6일 【강의】 한일관계 2000년 화해의 길에서	2023년 11월 6일 【예방】 경기도 구리시청
	
2023년 11월 7일 【학교방문·교류】 성남외국어고등학교(제 1 단)	2023년 11월 7일 【학교방문·교류】 청명고등학교(제 2 단)
	
2023년 11월 8일 【시찰】 비무장지대(DMZ) 캠프 그리브스	2023년 11월 9일 【기업 방문】 플무원
	
2023년 11월 9일 【교류】 방한단 OB와의 대화	2023년 11월 10일 【시찰】 국회의사당

3. 참가자 감상(발체)

◆ 일본 고등학생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정치적인 속박 등과는 관계없이 짧은 시간에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사람들의 편견을 통해 알려진 ‘한국인’과 실제로 본 ‘한국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려진 정보에서만으로는 한일 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솔직히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강의나 대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미지는 180 도 바뀌어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도 있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허물없이 사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가고 싶습니다.

◆ 일본 고등학생

이번 방한에서는 실제로 가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교방문에서는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해외의 동세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한일의 가치관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학생들과 서먹해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 일본 고등학생

이번 방한 및 다양한 기회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한국 측 분들에게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 측 설명만 들어 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분들이기에 알아차리는 것, 느끼는 것 등 전부 일본인과 다릅니다. 또한 강의를 통해 한일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 등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시찰을 통하여 현재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일본 고등학생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한국인 고등학생과 알게 되는 기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체험이 되었습니다. 방한단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 교류를 심화하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방한 일정 중 계속 동행해 준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매일 한국어를 비롯해 한국의 다양한 점을 즐겁게 대화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4. 한국 측 감상(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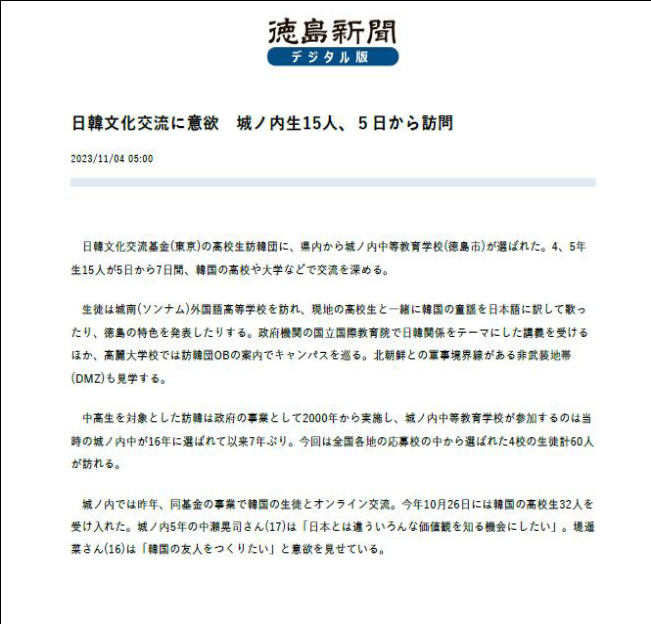
◆ 방문 학교 담당자

코로나로 인한 멈춤이 길었던 까닭에 다시 시작되는 한일 고등학생 교류 프로그램운영에 대해 기대감과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방문한 일본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즐거워하는 표정에서 문화의 차이, 언어 소통의 부족함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손으로 김밥을 말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학생들은 국경을 넘어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인 그 자체였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기회를 갖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 교류상대(방한단 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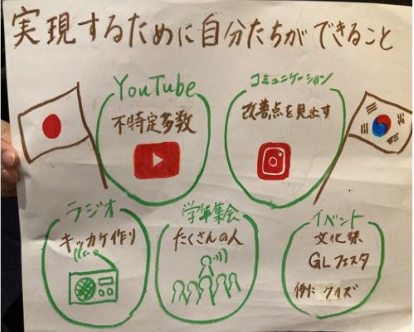
부족한 발표였음에도 참가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발표자의 입장에서 매우 기쁩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강의내용이었는데 프로그램 종료 후 저의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을 곧바로 실천하려고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몇몇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서 도리어 제가 격려를 받았습니다. 연단에 올라가서 한 강의는 아무래도 청강자와의 물리적·정신적 거리감이 생기게 되므로 다음 번에는 조금 더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발체), 보도기사 등

	
2023년 11월 4일(도쿠시마 신문 디지털) 일한문화교류기금 고등학생방한단에 도쿠시마 현 내에서 조노우치 중등교육학교가 선정되었다. 학생들은 성남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지 고등학생과 함께 한국의 동요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노래하거나 도쿠시마의 특색을 발표하기도 한다. 정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일관계를 테마로 한 강의를 듣는 것 외에 고려대학교에서는 방한단 OB의 안내로 캠퍼스를 둘러본다. 북한과의 군사분계선(DMZ)도 견학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6일 (Instagram) 4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제강의에서는 한국의 관점에서 한일의 경제비교를 역사와 접목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봄으로써 지금의 경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발전했는데 현재는 한국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며 서로 채워야 하는 점이 있어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며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 Q ▼ ... いいね! Day3 11/7 今日は城南外国語高等学校へ行きました。韓国の高校生と交流して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日本のことや韓国のことなど様々な話をでき、日本に興味を持ってくれている人が多いと感じました。韓国の給食も体験し、普通ではできない体験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別れがとても寂しかったです。連絡も交換し、今後も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りたいです。日本に来てもらい、交流を続けたいです。明洞散	 ♡ Q ▼ ... 11/5부터 11/11까지의 방한에서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에 의해 살아난 장면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고, 배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일간의 교류를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2023 년 11 월 7 일 (Instagram) 오늘은 성남외국어고등학교에 갔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과 교류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일본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매우 섭섭했는데 연락처도 교환해서 다음 번에도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에 초대해서 교류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2023 년 11 월 11 일 (Instagram) 11 월 5 일부터 11 월 11 일까지의 방한에서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한일간의 교류를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6. 보고회에서의 방한 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11月】 まずは帰国後に友人、留学生とコミュニティセンターにて意見交換「何を見た?」「何を学んだ?」「何を思った?」「何が出来る?」 【12月】 立命館守山中・高等学校ユネスコ委員会が運営している立命館ラジオに出演! 11月の意見交換をもとに、自分たちの考えを学校内外に広めます! 同時にYouTubeチャンネルを通して自分たちの今回の活動を発表します。 【1月】 訪韓前から準備を進めてきた「GLフェスタ」が開催されます。訪韓を含め、自分たちのこの一年間の学びをワークショップという形で還元し、地域の方々に楽しく学んでもらう機会を提供します! クイズあり、体験あり、発表あり...さまざまな世間で世界を知って変えていく機会を創出します。 *GLフェスタとは、立命館大学附属高等学校の生徒たちが創り上げる、学びの祭典です。個人やグループで行ってまた自分たちの発信は発信していく行事です。	2. アクションプラン (帰国後3ヶ月以内の行動計画) 1. 「ホームページに掲載」 訪韓中の様子を本校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し多くの人に知ってもらおう。 URL: https://www.tuins-h.ed.jp/topics/jenesis2023-韓国訪問団に本校生徒参加!/ 2. 「学校新聞で報告」 訪韓の成果を学校新聞の記事にし、配布し報告する。 3. 「SNS投稿」 訪韓後の成果をSNSで発信し、多くの人に研修の成果を伝える。 4. 「報告冊子の作成」 参加者全員の訪韓の成果を1冊の冊子にまとめ、全てのクラス、教職員、中学校関係者等に配布する。 5. 「You Tube 動画の作成、配信」 成果報告の動画を作成し、学校のホームページから配信する。 6. 「清明高等学校などの韓国の高校と連携」 姉妹校、協力校、などの提携をすすめる。
【방한 중의 배움】 국가 간의 편견이 아니라 개개의 장점을 보는 것에서 우정이 생겨나 그것이 한일 관계를 우	【방한 중의 배움】 고등학생 등 우리와 같은 젊은 세대가 다른 국가의 문화나 역사·경제를 배우고 자국과의

호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쟁상대로 보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매력과 장점을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테마에 관한 방한 중의 발표】 방한단에서의 교류를 통하여 교과서에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는 한국의 역사와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각각 다른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양국이 잘 제휴할 수 있다면 라이벌이 아닌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방한단 OB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한일 관계에 대해서 더욱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저 자신이 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액션플랜】 • 귀국 후에 의견교환회를 열고 그 내용을 라디오나 YouTube 채널에서 발신한다. • 1월에 예정하던 학교행사에서 지역 분들에게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워크숍을 실시한다. • 한국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과 계속 교류해 간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하는 방식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테마에 관한 방한 중의 발표】 학교방문 때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선택수업이 있어 많은 학생들과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 외에 한국 측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일본인들에게 흥미를 보여 주고 많은 학생들이 말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커뮤니티가 미래의 가교가 되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고등학생들끼리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싶습니다. 【액션플랜】 • 방한단에서 경험한 것을 학교신문의 기사로 하여 배포·보고한다. • 방한단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 • 이번에 교류한 학교와의 자매교·협력교 등의 제휴를 진행한다.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